

가가상감(加賀象嵌)

가가상감은 가가번(현재의 이시카와현)에서 발달한 장식 금속공예 기법으로, 195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감은 단단한 지금(地金)에 금이나 은 등의 부드러운 금속을 채워 넣는 기법입니다. 장인은 지금에 문양부분을 새길 때 표면보다 바닥부분을 더 넓게 파냅니다. 이렇게 만든 홈에 금속을 두드려 넣으면 금속이 홈 내부에서 퍼지면서 지금 속에 꼭 맞게 들어가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가가상감에서는 채워 넣은 금속에 또 다른 금속을 겹쳐 층으로 만들어가는 '겹상감'이나 약액에 담가 독특한 색감과 광채를 만들어내는 '이로가네'라는 일본 특유의 기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가상감은 에도 시대(1603~1867) 가가에서 활발하게 생산된 갑옷 및 마구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가번은 금속공예를 포함한 전통공예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며, 교토와 에도(현재의 도쿄)에서 유명한 금속공예 장인들을 초청해 지역 장인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가에서는 미적 아름다움과 내구성을 겸비한 상감 작품들이 다수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소프트 파워 전략의 도구로 활용되어 쇼군이나 다른 번 다이묘들에게 헌상되었습니다.

가가상감의 독창적인 예술 스타일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장인들은 전통 기법을 준수하면서도 주얼리나 예술작품, 인테리어, 실내장식 등의 분야에서 가가상감의 새로운 표현 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공예 예술가 중 한 명인 나카가와 마모루(1947~)는 그의 뛰어난 조금 기술이 높게 평가되어 200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